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 적성 · 인성면접 [사범대학]

제시문 [1]

아이가 아직 세계와 친숙해지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점진적으로 세계에 입문해야 한다. 그가 신참인 한 세계는 그가 세계와의 관계에서 성숙해지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때 교육자들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세계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또한 심지어 세계가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책임져야 할 세계의 대표들로서 그 신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교사의 권위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이를 마주 대하는 교사는 자신이 마치 모든 성인들의 대표인 양 아이에게 세계의 세부적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세계다’라고 말할 책임이 있으며, 그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는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어 안식처를 제공하며, 후속 세대가 세계에 왔을 때 그 안식처는 이미 옛날 것이 된다. 이렇듯 필멸할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는 늙아 간다.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각 세대가 가져오는 새로운 것에 걸려 있다. 기성세대의 ‘헌것’이 ‘새것’에 대해 그것이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아이가 가진 새로움을 보전하여,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사물로서 낡은 세계에 소개해야만 한다.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일, 무언가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을 할 기회를 빼앗지 않는 대신, 그들이 우리의 공통 세계를 경신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발췌·편집)

제시문 [2]

아래의 글에서 [문제]는 1514(중종9)년에 실시한 과거시험 별시 문과에 출제된 문제이며, [답안]은 해당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사람이 작성한 답안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전략)

지금 나라에서는 오로지 학문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나 스승의 도가 무너지고, 학교에는 이름은 등록해 놓지만 각자 혼자서만 공부하며 따지고 묻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또한 마을과 동네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고, 심지어 선생과 어른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서 마침내 나쁜 풍습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스승의 도가 확립되고, 학문에 근본이 있게 하며, 선비가 예의와 공경을 알게 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선현의 좋은 도리를 배웠으므로 반드시 이런 폐단에 대해 분하게 여기고 있을 테니, 오늘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전의 좋은 사례를 들어 구제할 계획을 남김없이 진술하라.

[답안]

(전략)

만일 스승의 도가 확립되고 학문에 근본이 있으며, 선비가 예의와 공경을 알기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왕에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앞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스승의 도가 위에서 먼저 확립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확립되기를 바란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후략)

-김태완, 『책문, 조선의 인문 토론』